



기수로 나선 김현우 한국레슬링의 간판 김현우가 22일(한국시간) 마라카낭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폐막식 도중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 | 뉴시스



바흐 IOC 위원장의 인사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22일(한국시간) 마라카낭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폐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 | 뉴시스



도쿄올림픽에서 만나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앞줄 왼쪽)이 22일(한국시간) 마라카낭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폐막식 도중 고이게 유리코 도쿄도지사에게 오륜기를 전달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 | 뉴시스

축제는 끝났지만 스포츠 외교전은 ‘~ing’



남장현의 리우 리포트

차기 올림픽 개최 희망국가들 홍보전
올림픽 기간 수차례 언론브리핑 분주
평창·도쿄조직위는 상대적으로 여유
새 IOC 선수위원 유승민 행보에 관심

4년에 한 번, 보름여 동안 열리는 지구촌 최대의 종합 스포츠 이벤트인 올림픽의 불거리는 전 세계 각국의 전사들이 펼쳐는 열전이 전부가 아니다. 흔히 ‘총성 없는 전쟁’, ‘장의 전쟁’으로 표현되곤 하는 스포츠 외교전도 빼놓을 수 없다.

22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스타디움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도 그랬다. 경기 전·후로 이뤄지는 공식 기자회견 외에 수시로 언론 브리핑과 발표가 이뤄졌다. 결전을 위해 각국 선수단이 리우에 속속 입성하기 시작한 지난달 26일부터 하루에도 수차례 미디어센터(MPC)에서 회견이 진행됐다. 각국(종목별 및 국가별) 선수단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리우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등 주최 대상도 다양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유승민(왼쪽 3번째)은 22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폐막식에 참가해 다른 선수위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등 대회기간 중 적극적인 스포츠 외교를 펼쳤다. 리우데자네이루 | 신화뉴스

삼바(Samba)·판당고(Pandango)·카림보(Carimbo)·프레보(Prevo)·카티라(Catira) 등 미디어센터에 구비된 5개 브리핑 룸에서 분 단위로 쪼개고, 30분~1시간 안팎으로 이뤄진 행사의 의미와 목적은 거의 비슷했다. 대외 홍보였다. 지구촌 주요 매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행사 담당자들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2020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입장이었다. 개최권을 스스로 반납하지 않는 한, 또 천재지변으로 도저히 대회를 치를 수 없게 되지 않는 한, ‘개최지’라는 타이틀을 잃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회를 어떻게 개최할지, 어떻게 준

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 됐다.

반면 차기 동·하계올림픽 개최를 희망하는 국가들의 NOC(국가올림픽위원회)의 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내년 9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릴 제130차 IOC 총회에서 2024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투표가 이뤄지는데, 미국 LA,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헝가리 부다페스트, 독일 함부르크 등 5개 도시가 후보지다. 당연히 이들 NOC의 움직임은 치열하고 부산했다. 노출을 극대화하면서 장점을 적극 홍보하느라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물론 IOC 임원들과 최대한 접촉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 폐회식에서 만난 헝가리의 라즐로 차퓨토 기자는 “우리는 200여명의 선수단이 리우올림픽에 나섰다. 기존보다 규모가 컸다. 파견된 기자 숫자도 늘었다. IOC 행사도 빠짐없이 찾아다녔다. 헝가리와 부다페스트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리우올림픽 직전 직무가 정지된 문대성 위원에 이어 IOC 선수위원으로 새로 뽑힌 유승민 위원도 2024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투표에 참여한다. 물론 그가 리우올림픽 출전선수단 투표를 통해 IOC에 발을 들이기까지의 과정 또한 넓은 의미로 보면 ‘스포츠 외교전’이었다.

스포츠1부 기자 yoshike3@donga.com

“남자농구도 연령제한 도입하자”

미국대표팀 15번째 금에 대안 대두
국제농구연맹도 “반대 안해” 관심

이른바 ‘드림팀’으로 불리는 미국남자농구대표팀이 22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카리오카 아레나 1관에서 벌어진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남자농구 결승전에서 세르비아를 96-66으로 완파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올림픽에 이은 3연패다. 미국은 이번 우승으로 역대 15번째 남자농구 금메달을 쟁겼다. 미국프로농구(NBA) 선수들의 출전이 허용된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이후 미국이 금메달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이 유일하다. 당시에는 동메달에 그쳤다.

NBA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이 허용된 이후 미국남자농구대표팀은 대회마다 화제를 몰고 다녔다. 선수촌 대신 특급호텔 등 호화 생활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많은 언론과 팬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상대를 크게 꺾으면 ‘역시 드림팀’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고전하면 비난도 빚받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은 바르셀로나올

림픽 이후 남자농구에서 독보적 존재가 됐다.

드림팀의 독주가 거듭되자, 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공교롭게도 선수들이 소속된 NBA 관계자들이 올림픽 남자농구 출전선수의 연령을 제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NBA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돌아와 팀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다. 남자축구처럼 23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그 대신 축구처럼 모든 역량을 농구월드컵에 쏟아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우올림픽에서 미국이 또 우승하자 미국의 한 언론은 NBA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남자농구에 연령제한을 도입해 다른 국가들도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문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국제농구연맹(FIGA)도 농구월드컵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올림픽에 연령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드림팀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반정부 세리머니 릴레사 ‘메달 박탈 위기’

(아라톤 은메달리스트)

“에티오피아의 학대 알고 싶었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남자 마라톤 은메달리스트 페이사 릴레사(26·에티오피아·사진)가 반정부 세리머니를 펼쳐 메달 박탈 위기에 놓였다.

릴레사는 22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삼보드로모 경기장에서 끝난 남자 마라톤 결승선을 2번째로 통과하면서 머리 위로 두 팔을 교차해 ‘X’자 모양을 만들었다. 그의 고향 오로미아주의 평화시위에 대해 무력진압을 펼치는 에티오피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시상대 위에 올라서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동작을 취한 릴레사는 “에티오피아에서 벌어지는 정부의 학대행위를 알고 싶었다”며 “에티오피아 정부는 사람들을 죽이고, 땅과 재산을 빼앗고 있다. 오로미아 사람들은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고, 나 역시 오로미아 사람으로서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탄약을 사용하는 등 무력으로 반정부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와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소 5000명의 오로미아인들이 반정부 행위로 체포됐다. 릴레사는 “이미 가족 중 일부는 감옥에 갇혀있다. 만



약 내가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정부는 나를 죽이거나 감옥에 가둘 것”이라며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브라질에 머물거나 케냐, 미국 등 비

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다른 국가로 옮겨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에서의 상업·정치·종교적 행위를 철저히 금하고 있다. 이 때문에 릴레사는 은메달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올림픽 헌장 50조에는 “올림픽 개최지와 경기장, 이외의 모든 지역에선 IOC의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행위나 정치, 종교, 인종에 관한 시위는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전례도 있다. 1968 멕시코시티올림픽 육상 남자 200m에서 금·동메달을 차지한 미국의 토미 스미스와 존 칼로스는 목에 검은 스카프를 두르고 신발 없이 검은 양말만 신은 채 시상대에 올라 검은 장갑을 낀 손을 높게 들어올리는 등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블랙파워 시위’를 펼쳤다가 메달을 빼앗긴 바 있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우여곡절 지나간 3주…“아떼 마이스, 리우”

(또 만나요)

봉 지아 리우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촌살 같이 흐른 3주였습니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을 취재하기 위해 브라질로 향하는 내내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2년 전 월드컵부터 3번째 브라질 방문이지만, 하루를 넘기는 긴 비행시간 동안 채 3시간도 잠들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처음 경험할 종합대회, 실수하면 어쩌지? 전 종목은커녕 대한민국 선수단이 출전하는 경기조차 모두 커버할 수 없는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찾은 현장에서 소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엉뚱한 곳만 향하는 것 아니?

걱정할 틈도 없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서부터 일이 파도처럼 밀려오니 급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숙소를 찾고, 대회기간 동안 사용할 개인

전용 유료 인터넷을 구입하고 숙소→미디어센터, 미디어센터→각 경기장 셔틀버스 시간표와 동선을 파악하는 데 첫 날이 훌쩍 흘렀습니다. 적응 완료.

개막식을 보기 위해 ‘브라질축구의 성지’ 마라카낭 스타디움을 향한단 설렘과 더불어 ‘사격황제’ 진중오가 남자 10m 공기권총을 5위로 마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시작한 올림픽이었습니다. 양궁 남자단체전을 포기하고 사격장을 찾았는데, 처음부터 ‘동선 미스’라니… 역대 올림픽은 대개 사격에서의 금빛 총중으로 시작된 걸 아시죠? 다행히 우리 선수들이 획득한 9개의 금메달 중 6개를 직접 지켜봤으니 나름 성공한 셈입니다. 물론 금메달 못지않은 감동을 안긴 은·동메달도 많았고요. 올림픽 관련사의 사실상 마지막 일정이었던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의 눈물은 아주 오래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고도 참 많았습니다. 노트북이 갑자기 먹통이 돼 2차례나 교체한 기억

은 정말이지 끔찍했습니다. 번기가 고장난 숙소는 애교였죠. “해결할 수 없으니까(서비스센터가 있는) 상파울루로 가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다리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당장 기사 송고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기사를 쓰려 했더니깐요. 폐막일 아침에는 숙소 전체가 정전됐더라고요. 개인 방이 아니라, 8층짜리 빌리지 7동 전부가….

그래도 추억만 담으려 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 찾아간 리우의 명소들,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지켜본 비치발리볼, 마라카낭에서 직관한 브라질 축구의 전진, 더 이상 올림픽에서 볼 수 없을 마이클 펠프스(미국)의 물살 가르기, 우사인 볼트(자메이카)의 역주 등 올림픽을 즐길 기회도 충분히 많았으니까요. 좋은 기억 많이 얻고, 견문 많이 넓혀 돌아갑니다.

오브리가두(고마워요), 리우! 아떼 마이스(또 만나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 남장현 기자

리우 안테나

브라질남자배구 12년 만에 금 탈환

브라질이 22일(한국시간) 마라카낭 나지뉴 배구경기장에서 열린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남자배구 결승에서 이탈리아를 세트스코어 3-0(25-22 28-26 26-24)으로 꺾고 2004년 아테네대회 우승 이후 12년 만에 다시 올림픽 정상을 밟았다.

美수영스타 록티 ‘강도 자작극’ 징계

리우올림픽 도중 ‘강도 자작극’으로 물의를 빚은 미국의 수영 스타 라이언 록티(32)에게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올림픽위원회(USOC) 스포츠 블랙턴 위원장은 “록티에게 추가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랙턴 위원장은 어떤 징계를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록티와 함께 자작극을 한 선수들은 우리 선수단뿐 아니라 미국 전체에 실망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편집 | 김태연 기자 bong82@donga.com